

最初の十番棋

時事新報主催 十番棋 第1局

33年 3月 29日 ~ 4月 21日 新聞에 掲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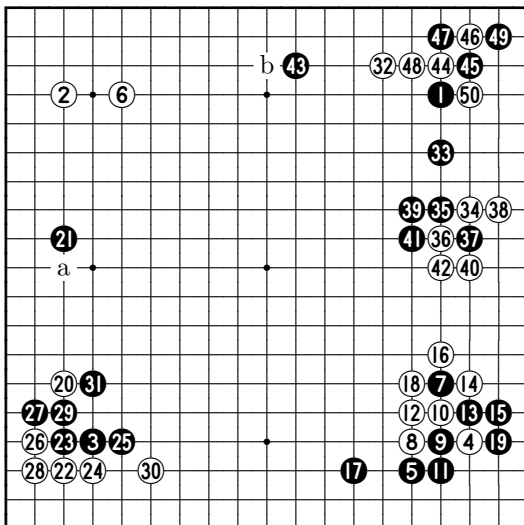
五先 五段 木谷 實
先番 五段 吳 清源

第一譜(1 ~ 50)

本因坊秀哉名人 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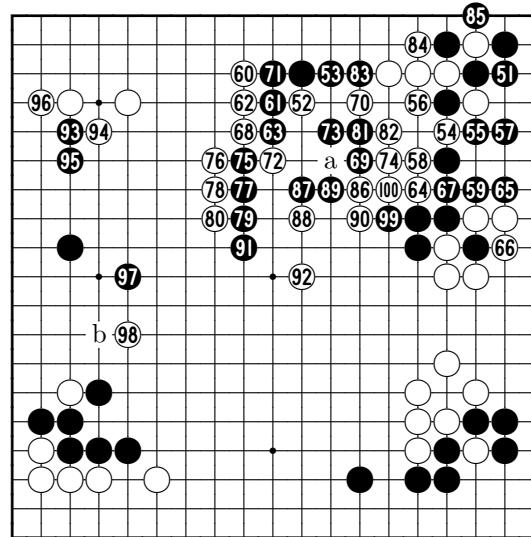
白20으로 멀리 뻗쳐간 것은 껍이나 迫力强大한 手段이기는 하나 黑으로부터 21로 협공당하여 後方과의 연락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은 自明한 일. 그렇다면 20으로는 a, 아니면 b로 要點을 차지하여 이후의 雄飛에 對備하고 서서히 局勢의 趨移를 靜觀하면서 유유히 두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白34로 다가서는 것도 아랫쪽 밑이 터져있는 意味가 있어서 이곳에서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은 不可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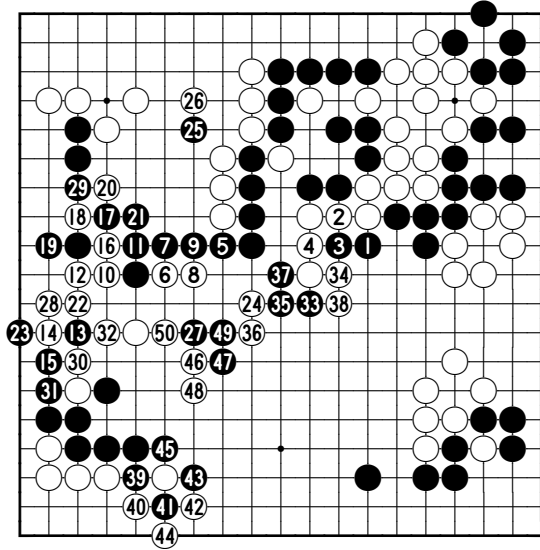
第二譜(51 ~ 100)

白62로 미는 것은 좀 무겁다. a로 進出하는 것이 輕快. 黑99이하의 雲石은 俗된 맥으로 時機尙早인 것 같다. 잠시 보류하고 b로 응하는 것이 재미있을 듯.



第三譜(101 ~ 150)

白24로 달렸으나 實質的인 이득은 없다. 알기쉽게 28로 잇고 黑29, 白30으로 응접하여 재빨리 安全地帶의 구축에 힘써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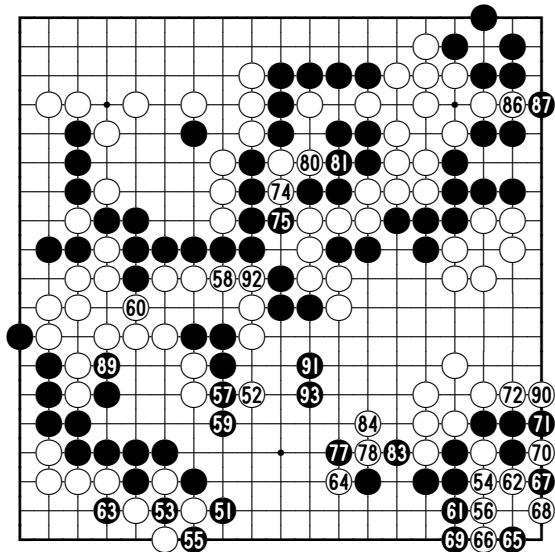


(註) 이 十番棋는 39년에 開始된 讀賣新聞主權의 十番棋와는 달라 置數고치기가 아니다.

日本棋院에서는 이전의 慣習이었던 置數고치기制를 폐지하고 段差에 의한 對局制度로 轉換했다. 같은 五段끼리로 시작한 本 十番棋는 三勝三敗가 된 始點에서 木谷五段이 昇段, 互先으로 두는 데에 支障이 생겨 증도에서 그만두게 되었다.

第四譜(151 ~ 193)

白52는 어떻든간에 53로 이어서 最後의 一戰을 試圖해 보는 수 뿐이다. 黑에게 63으로 끊기어 이 一團의 白이 잡히기에 이르러서는 黑의 위압을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어, 드디어 無念의 눈물을 삼킬 수 밖에 없었다.



73, 79, 85패때림(67)

76, 82, 88패때림(70)

193手 끝 黑 不計勝